

# 하루 60분, 아이들 놀이 시간 확보

## 전북교육청, '놀이밥 60+ 프로젝트' 사례발표회 진행

전북도교육청이 '놀이밥 60+ 프로젝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놀이밥 60+ 프로젝트'는 놀이 시간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하루 60분 이상의 놀이 시간을 확보,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층 강당에서 '놀이밥 60+ 프로젝트' 운영사례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교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례 발표회는 '놀이밥 60+ 프로젝트'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교육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놀이공간 조성 및 활용 사례(전주완산초 사형주 교사) △즐거움 학교운영을 위한 놀이시간 운영 사례(전주인후초 김주연 교사) △인후초의 이동친화도시 조성(원주군청 이동친화팀 홍문기 박사) 등이다. 전주완산초 사형주 교사는 "놀이공간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놀이공간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놀이터 이름을 짓는 과정까지 아이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서,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어떠한 놀이기구나 도구 없이도 그 자체로 놀이공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인후초 김주연 교사는 "도심에 있는 대규모 학교의 경우 절대적인 놀이 공간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놀이'를 타의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공간이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된다"면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노는 것 역시 신나고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도 따라서 할 수 있

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군청 홍문기 박사는 완주군의 이동친화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동권리영화제, 놀토피아,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1인 1악기 창의인재육성 시범 학교 운영 등 이동친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놀이를 통해 건강 강한 신체는 물론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으로 포대집단 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가자 한다"면서,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활동 사업에 먼저 참여한 학교들의 사례를 통해 놀이공간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변화에 대응 나선다

###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동반 성장 위한 '상생발전 워크숍' 진행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16일 전라북도 여성회관 상생발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여성회관 교육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선진 여성 연구·교육기관인 '충북여성재단'과, 도시재생 및 문화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동부창고'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동부창고는 옛 연초제조창의 담배 잎 보관창고였던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전시, 교육, 공연 등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로써, '시인'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중이어서 지역의 다양한 공간들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 기관 담당자들의 트렌디한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한자리에 모인 시군의 여성 교육 담당자들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해당 지역민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상생발전 워크숍이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여성회관의 발전적 대안을 찾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시·군여성회관장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협력사업 발굴 운영 및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LINC+사업단 호남제주권 '최우수'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2단계 진입 확정 결과와 증액된 최종 사업비를 발표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에 따르면 이번 2단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매우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매년 1단계 보다 5억이 늘어난 43억 8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주대는 2018년 선정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교육부로부터 연간 53억 8천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산학 연구로 개발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질병제거 기술인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심포지엄에서 연구 성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 부드러운 육질, 풍부한 영양분 '두지포크' 큰 호응

###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서울서 열린 농진청 심포지엄서 산학연구 성과 '눈길'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교)의 산학 연구로 개발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질병제거 기술인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심포지엄에서 연구 성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사업단이 개발한 '예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유익균 장내 공생화를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 및 질병제거 기술이다. '두지포크'는 이 기술로 생산된 돈육이다.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산균 패치라고 불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양돈 농가에서

다량의 항생제 대신 고농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료용·음수용·축사 소독용으로 사용했을 때 일반 농가에서 자란 돼지보다 프로바이오틱스 환경에서 자란 돼지가 자가 존진홍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심포지엄에서 연구 성과로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90%로 매우 높아서 구제역으로 인한 폐사율이 2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지포크와 일반 돈육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지포크가 일반 돈육 대비 6% 부드러우며 오메가3, 비타민C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된 것이 증명됐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건

강하게 만들어 몸의 소화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졌지만, 가축분야 활용면에서는 미지의 영역이 많다"며 "앞으로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축산 4대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지포크는 공식 홈페이지(http://doozyfork.com/)와 전주 객리 단길에 위치한 수제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 '올리벤즈'에서 판매중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 농축산브랜드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전북대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 공유·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를 통해 교육정책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전북도교육청 사서 교사의 직무연수 협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국회 전자도서관의 방대한 지식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전북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들이 국회 전자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방대한 국가 지식정보 활용으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세계의 지식정보를 수집해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기관으로 현재 6백만 책이 넘는 소장자료와 2억 2천만 면이 넘는 방대한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 발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직원들의 공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를 발간·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 자료는 공문서 개념 및 올바른 문서 작성법을 안내하여 직원들이 쉽고 바르게 문서를 작성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공문서 개요, 공문서 작성, 공문서의 결재 및 비준지문서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문서 작성 기준 일부 개선사

항'을 포함했다. 또한 문서작성의 올바른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자주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어를 담았다.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는 지속 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전체에 배부되며 도교육청 누리집(총무과/부서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바른 문서작성법 준수와 이해하기 쉬운 문서작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